
서사시 「금강」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for Epic Poem Geumgang

강상대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Sang-Dae Kang(kangga@dankook.ac.kr)

요약

본 연구는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텍스트의 서술구성을 분석하고 스토리텔링 요소를 검토하였다. 이 작품의 서술은 역사적·허구적·서정적 성격의 서술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각 서술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층위는 시인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 작품은 서술내용에 따른 다양한 층위의 사건과 인물을 구현함으로써 풍부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영웅적 성격의 인물, 전쟁 서사와 허구적 공간, 설화적 스토리 등은 매우 중요한 스토리텔링 요소로서, 「금강」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문화콘텐츠 | 스토리텔링 | 서사시 | 금강 | 신동엽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narrative composition and examined storytelling elements to develop Shin, Dong Yeop's Epic Poem *Geumgang* into cultural contents. This piece's narration involves separately or compositely historical, fictional, and lyrical compositions and the hierarchical meaning of each composition contributes to exposing the poet's historical view and perception of reality. This piece also contains several storytelling elements by presenting various hierarchies of events and characters. This pieces' heroic characters, war epics and fictional spaces, and mythical stories are very important storytelling elements, and will be effectively used to develop cultural contents for *Geumgang*.

■ keyword : | Cultural Contents | Storytelling | Epic Poem | *Gumgang* | Sin Dong Yeop |

I. 서론

한국 현대시사에서 신동엽(1930~1969)은 시의 사회적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역사와 현실의 모순에 대해 비

판하고 저항한 대표적인 참여파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시정신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에 기초하여 원초적 생명과 공동체 의식의 복원을 추구하고, 이를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민중정신의 구현으로 연결시

* 본 연구는 2004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60623-001

접수일자 : 2006년 06월 23일

심사완료일 : 2006년 07월 14일

교신저자 : 강상대, e-mail : kangga@dankook.ac.kr

김으로써 민족문학의 한 지평을 열어주었다. 특히 신동엽은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과 분단 상황, 정치의 반민주성과 외세 의존적 현실 등 우리 역사의 비극성을 적극적으로 시의 언어로 구조화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 남겨진 「껍데기는 가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민중 지향의 시정신과 견고한 언어 구조가 바로 신동엽의 시에서 우리가 남다른 감동과 진솔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1].

이와 같은 신동엽의 시는 민족문학으로서의 정신적 가치와 작품 자체의 미학적 가치를 아울러 지니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다. 또한 역사의식과 현실 인식에 투철한 지식인으로서 시를 통하여 사회 변혁의지를 실천하고자 했던 시인 신동엽도 역사인물 또는 문화인물로서 마땅히 선양해야 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근년에 들어 신동엽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KBS-TV, 「인물 현대사」, 2004년 7월 2일 방영)되거나,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문화인물'로 신동엽이 선정(2005년 4월)되는 등 대중적 조명이 이루어진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신동엽의 고향이며 그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는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신동엽 문학관'이 건립중에 있음을 볼 때 신동엽과 그의 시에 대한 조명은 더욱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신동엽 문학이 지닌 문학사적 의미 및 사회적 관심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하에 신동엽의 대표작이자 서사시로서의 장르적 특성을 지닌 작품인 「금강」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금강」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서술구성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 구조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서술 구성에 내포되어 있는 스토리텔링 요소를 확인하여 문화콘텐츠로 기획·제작될 수 있는 스토리 기반의 원천 소스로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금강」의 문자 텍스트는 문화원형으로 기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가치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금강」의 서술구성 분석

1. 서술구성의 내용과 성격

「금강」은 '서장-본장(제1장~제26장)-후화'로 구성된 총 4,681행의 서사시로서 1967년 을유문화사가 펴낸 '현대한국신작전집' 제5권인 『서사시·장시·시극』에 수록·발표된 작품이다. 이후 신동엽 사후인 1975년에 간행된 『신동엽전집』(창작과비평사)에 재수록되었으며, 1989년에 단행본으로 기획되어 『금강』(창작과비평사)으로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발표 당시에 그 내용이나 형식상의 파격으로 인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신동엽의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그의 대표작으로서 문학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단행본 『금강』에 수록된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작품의 서술내용과 그 성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표 1]과 같은 서술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금강」의 서술구성

장	서술내용	서술성격
서장	· 시적 자아인 '나' 는 '역사' 를 이야기하고자 함(우리들은 '하늘' 을 봄)	서정적
제1장	· 전국의 농민봉기 - 1862년 진주농민반란 - 1871년 문경농민반란	역사적
제2장	· 수운의 행적 - 1824년 수운의 탄생 - 1860년 수운의 득도(수운은 '하늘' 을 봄)	역사적
제3장	· '나' 는 금강변에서 '하늘' 을 봄 · 녀의 '눈' (눈빛)을 인식함	서정적
제4장	· 수운의 행적 - 1864년 수운의 순교	역사적
제5장	· 부여 농사꾼 딸의 삽화 · 마한 땅 아소의 삽화	서정적 허구적
제6장	· 고구려, 백제 시대 민중의 평화로운 삶 · 조선시대 권력층의 반민중적 부패상과 민폐, 사대주의 · 근대 이후의 분단 현실, 자본 및 외세의 침탈, 민중에 대한 억압	서정적
제7장	· 민중의 굶주림, 고통	서정적
제8장	· 신하늬의 성장 과정	허구적
제9장	· 신하늬 아내의 부정, 자살	허구적
제10장	· 신하늬와 인진아의 만남	허구적
제11장	· 인진아의 삶의 내력 · 신하늬와 인진아의 사랑	허구적

제12장	· 전봉준의 행적 - 1854년 전봉준의 탄생, 성장 - 1888년 동학 입도 - 해월과의 만남 · 해월의 행적 - 포교 활동 - 1898년 해월의 순교	역사적
제13장	· 전봉준 아내의 죽음 · 전봉준이 김개남, 손화중 등 동학접주들을 만 남 · 전봉준과 신하늬가 만나 의형제를 맺음 · 민중 억압과 외세 침탈의 현실 - 1882년 임오군란 전후의 현실 - '지금' 의 현실	역사적 서정적
제14장	· 동학운동 - 1892년 제1차 교조신원운동 - 1893년 제2차, 제3차 교조신원운동	역사적
제15장	· 세상 인심의 흉흉함 · 농민반란 - 1893년 전주, 익산 등지의 농민반란 - 고부의 농민반란 · 고부 사건으로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이 사망함	역사적
제16장	· 전봉준과 신하늬가 혁명을 결의함	역사적 허구적
제17장	· 갑오농민전쟁 - 1894년 갑오농민전쟁의 발발 - 고부성, 전주성 입성	역사적
제18장	· 청일전쟁 · 농관협상과 농민군 해산 · 혁명에 대한 전봉준과 신하늬의 견해 차이 노 출 · 전봉준과 신하늬의 헤어짐	역사적 허구적
제19장	· 신하늬의 귀향 · 마동설화 서술과 '나' 의 어린 시절 회상	허구적 서정적
제20장	· 일본의 아만적 침략상 - 임진왜란 당시 쿠포담의 비극성 - 1894년 일본군의 남진 · 농민군과 일본군의 접전 - 우금티 싸움 · 우금티와 관련한 '나' 의 추억	역사적 서정적
제21장	· 농민군의 패퇴 · 일본군, 관군에 의한 민중 학살 · 신하늬의 후퇴 길의 소회와 유격부대 조직 암 시	역사적 허구적
제22장	· 1960년 4·19혁명 때의 민중의 저항과 승리	서정적
제23장	· 우금티 결전 이후 일본군, 관군의 만행 · 전봉준의 체포, 고문, 교수형	역사적
제24장	· 동학농민운동의 상징적, 서정적 표현	서정적
제25장	· 인진아의 슬회 - '또하나의 하니' 를 잉태함 · '나' 는 인진아가 서있던 강기슭에서 한국전 쟁 당시의 피난길을 슬회함	허구적 서정적
제26장	· 인진아가 아기 하늬를 낳음 · 신하늬의 죽음에 관한 암시	허구적
후화	· 노동으로 지친 '나' 는 종로 5가 네거리에서 죄없이 크고 맑은 눈을 한 소년을 만남 · 1894년, 1919년, 1960년의 민중의 '피' 의 결과로 찬란한 혁명의 날과 평화가 올 것임	서정적

2. 서술구성의 세 층위

[표 1]의 서술구성을 볼 때 「금강」은 역사적·허구적·서정적 성격의 서술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범주의 의미 층위를 내포하고 있다.

2.1 역사적 층위

「금강」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진 서술내용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의 전개 양상과 그 전쟁을 이끈 주체 세력의 일화, 그리고 동조 세력의 행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사적 층위로 이루어진다. [표 1]에서 밝힌 서술성격으로 볼 때 역사적 성격으로 구분된 장의 서술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층위를 일관하는 이념은 동학사상이며, 동학의 핵심적인 강령인 포덕천하·후천개벽·보국안민·광제창생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건 및 인물의 행위에 의해 역사적 사실성을 확보한다.

역사적 층위를 '사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862년의 진주농민반란을 필두로 하여 1894년 갑오농민전쟁의 발발과 종결에 이르는 30여년의 농민운동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 층위는 비록 시적 언어의 표현이나 상상력에 의한 서술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료를 충실하게 따른 객관적 사실(史實)을 드러낸다. '인물'의 측면에 있어서는 수운(최제우), 해월(최시형),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동학과 농민운동 지도자들의 삶의 행적이 전반적인 서술 내용을 이룬다. 가령 전봉준의 경우 i) 탄생과 성장, ii) 동학에의 입도와 해월과의 만남, iii) 아내와 아버지의 죽음, iv) 혁명 결의와 갑오농민전쟁의 수행, v) 체포 및 사망 등으로 이어지는 일대기가 생생하게 시의 행간에서 재현되고 있다. 수운과 해월 등 동학 지도자들의 행적 역시 그들의 비범한 행동과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일화에 의해 뚜렷한 인물 성격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금강」의 역사적 층위는 동학정신과 갑오농민전쟁의 복원을 통하여 역사적·사회적 현실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민중의 고통을 증언함과 아울러 민중의 분노와 저항의지를 드러내는 의미를 지닌다.

2.2 허구적 층위

『금강』의 서술구성에서 주목되는 특이점은 ‘신하늬’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에 의해 주도되는 허구적 층위의 설정이다. 신하늬는 i) 탄생의 내력과 성장 과정, ii) 아내의 부정과 자살, iii) 인진아와의 만남과 사랑, iv) 전봉준과의 만남과 갑오농민전쟁 참여, v) 사망 등과 같은 삶의 여정이 모두 11개 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것은 9개 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전봉준의 행적보다 비중이 더 크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이 작품에서 신하늬라고 하는 허구적 인물이 지닌 구조적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작품은 신하늬가 허구적 인물이되, 전봉준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과 결합하여 역사적 성격도 공유하는 인물로 그려낸다. 이런 점에서 신하늬는 “역사적 인물인 전봉준의 동학혁명 실패한 사실적 차원을 정신적 승리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2]이며,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신동엽의 당위적 해석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동엽은 신하늬를 통하여 ‘실패한 혁명’인 갑오농민전쟁의 한계성과 지향점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역사의식의 면모를 보여준다.

신하늬는 전주화약(全州和約)이나 집강소(執綱所) 설치에 만족하는 전봉준에게 “그 길로 서울 밀고 올라가 / 중심 도려냈어야 했습니다”(18장)라며 속전을 주장하고,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에 대항하는 방안으로 정공법을 피한 유격전을 촉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곧 갑오농민전쟁이 실패한 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갑오농민전쟁은 3·1운동과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중 혁명의 한 단초를 이루는 사건이다. 이러한 민중 혁명의 과정에서 신하늬가 드러내고 있는 비판적 인식은 ‘현재’에서 ‘과거’를 조망하고, 그것을 ‘미래’의 혁명에 대한 전망으로 연결하는 논리를 형성한다.

따라서 『금강』의 허구적 층위는 ‘성공한 혁명’을 꿈꾸는 시인의 상상력이 탄생시킨 서사 공간이다. 신하늬를 통해 우리는 갑오농민전쟁이 지닌 민중적 혁명 정신을 과거의 역사에서 불러내어 현재화할 수 있는 것이다.

2.3 서정적 층위

『금강』은 서술은 시적 화자인 ‘나’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즉 시적 화자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역사적 층위의 서술이며, 허구적 사건과 인물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허구적 층위의 서술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서정시와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가 세계와 자아를 동일화하는 서정성을 노출하는 경우를 서정적 층위의 서술로 볼 수 있다. 서사시의 장르적 성격이 “사실의 세계나 사실세계에 대한 성찰을 촉발할 수 있는 제재를 인물을 개입시켜 서술”[3]하는 데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숨어 있는 인물’인 시적 화자의 등장은 이 작품의 서사시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시적 화자인 ‘나’를 작품의 전면에 내세운다(서장, 3장, 5장, 7장, 13장 19장, 20장, 22장, 24장, 25장, 후화 등 모두 11개 장이 서정적 성격을 지님). 특히 도입부와 결말부가 모두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발화로 구성되는 액자형 구조를 지닌다는 사실로 볼 때도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에 의한 서정성의 표출은 전략적인 것이다.

‘나’는 시인 신동엽의 경험적 자아를 대신하는 화자이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나’는 현재 1960년대의 서울에서 노동자로 살고 있으며, 부여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에 ‘가슴 두근거리는 큰 역사’(갑오농민전쟁)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와 8·15해방, 6·25전쟁, 4·19혁명 등 현대사의 경험 속에서 민중 억압의 현실과 외세에 의한 민족 주체성의 훼손을 인식하고 동학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진정한 민중적·민족적 역사 구현을 성찰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나’에 의하여 표출되는 서정적 서술은 『금강』의 역사적 층위와 허구적 층위를 종합하여 총체적인 의미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즉 ‘나’의 시각과 인식을 통하여 역사적·허구적 사건과 인물을 관찰·해석하고 그것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금강』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과 허구성을 동원하여 현재의 역사적 상황과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당대 현실에 대하여 강렬한 비판의식을 지닌 신동엽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 민중 혁명은 비록 지금까지는

실패한 혁명으로 남겨져 있으나 반드시 “우리 사랑밭에 / 우리 두렛마을 심을, 아 / 찬란한 혁명의 날은 / 오리라”(후화)는 강렬한 열망과 실천 의지의 세계인 것이다.

III. 「금강」의 스토리텔링 요소

서사적 텍스트의 이야기가 사건적 요소(행위, 돌발사)와 사물적 요소(등장인물, 배경)로 구성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4]. 앞의 서술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강」은 역사적·허구적·서정적 성격의 서술내용에 따른 다양한 층위의 사건과 인물을 구현하고 있는 서사적 텍스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작품이 풍부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이 스토리텔링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에서는 문화콘텐츠로의 멀티유즈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금강」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1. 영웅적 성격의 인물 구현

「금강」은 다양한 인물 유형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 인물들에게서 강항 영웅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서술구성의 구분에 따라 「금강」의 영웅적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강」의 역사적 층위에서의 주동인물인 수운, 해월, 전봉준 등은 비록 역사상의 실존 인물들이기는 하지만 세속과 일상을 넘어서는 영웅적 면모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수운은 갖은 고초를 겪으며 ‘인내천’의 도를 발견하는 동학의 창시자로서 i) 집에 있는 노비 두 사람을 해방시켜 며느리와 양딸로 삼고, ii) 가지고 있던 땅을 무상으로 농민들에 나누어 주며, iii) 탈옥을 거부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이다(4장). 그리고 해월도 갖은 탄압에 쫓기면서 동학을 포교하는 종교 지도자로서 i) 여자나 아이를 ‘한울남’으로 소중하게 만들게 하거나, ii) 노동의 신성함을 몸으로 실천하다가 순교하기에 이른다(12장).

갑오농민전쟁을 이끄는 혁명 지도자인 전봉준은 혁

명 실패로 인하여 교수형을 당하는 비극적 인물이다. 그러나 봉건 현실의 모순과 부패 정권, 외세 침탈에 대항하여 50만 농민군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한 전봉준은 그 자체로 이미 전사적(戰士的) 영웅으로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금강」은 실존 인물인 전봉준의 영웅성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낸다. 가령 “키는 절구통 같은 오 척 / 시원한 이마 / 맑고 두리두리한 눈동자가 / 벌어진 어깨 위에서 빛났다. // 편안한 코, / 우렁우렁한 음성은 / 듣는 사람의 / 살 속에 스몄다”(12장)와 같은 행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평면적인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던 전봉준의 용모, 인품과 행동, 전쟁 수행 과정, 죽음 등의 삶의 행적을 시적 담화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영웅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첫눈에 전봉준의 뛰어난 인품에 놀라 “부지런히 꾀고추 고추장 짚어 / 입가심하고 뒤를 따라”나선 서장옥(12장)이나, 늙은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는 관속 두 사람을 수채구멍에 쑤셔 박은 일로 곤장 백 개를 맞고도 웃으며 일어섰다는 8척 장사인 김개남과 뛰어난 전략가인 김화중(13장) 등과 같은 동학 집주들의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영웅의 조력자로서 전봉준을 영웅적 인물로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신하늬는 「금강」의 허구적 층위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그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사실 속에 개입하여 혁명가의 길을 걸으며, 궁녀 출신의 인진아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아기하늬’를 잉태시킴으로써 가족 서사를 구성한다. 작품에 드러나는 신하늬의 일대기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하늬는 출생-성장-결혼-투쟁-죽음과 같은 삶의 과정에서 매우 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i) 부모를 모른 채 남에게 맡겨짐, ii) 가난과 설움 속에서 성장하며 한서와 불경을 읽음, iii)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지만 그녀는 자살함, iv) 인진아를 만나 지극한 사랑을 함, v) 갑오농민전쟁을 주도함, vi) 패퇴한 후 유격전 활동을 함, vii) 효수형을 자처한 죽음

등의 일화는 신하늬의 일대기를 매우 역동적이고 긴박하게 구성하는 서사 요소이다.

특히 신하늬의 탄생 및 성장 과정의 이야기는 그에게 영웅적 자질을 부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영웅설화에 등장하는 영웅적 인물은 대개 기구한 역경 속에서 태어나며 그 혈통을 알 수가 없고, 기아(棄兒)의 통과의례를 통하여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신격화와 존엄성을 과장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5]. 신하늬는 어느 여인에 의하여 “이 아이 조상은 묻지 말아 / 주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 보살펴주세요”(8장)라며 보자기에 싸인 채 맡겨짐으로써 ‘버려진 아이’의 출생 내력을 갖는다. 조상을 묻지 말아달라는 여인의 말로 비추어 볼 때 신하늬가 범상치 않은 가문 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암시된다. 이와 같이 신비에 싸인 가문과 출생 내력을 갖고 있는 신하늬는 배고픔과 학대를 겪으면서도 한서, 불경을 읽으며 그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영웅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는 것이다.

표 2. 신하늬의 일대기

구분	내용
출생	· 부여 김진사네 머슴인 톨쇠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나 보자기에 싸인 하늬를 맡김 · 하늬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름
성장	· 배고픔 속에서 자라남 · 3세 때, 배고파 우는 하늬를 김진사가 마당으로 던져서 다리를 다치고 절게 됨 · 이후 조할머니가 하늬를 기르며 9년 동안 하늬에게 한서, 불경을 읽힘 · 12세 때, 조할머니가 죽음 · 철들면서부터 톨쇠를 아버지처럼 모심
결혼	· 25세 때 여자를 만나 1년을 행복하게 삼 · 아내가 김진사와 정을 통한 후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함 · 북한산 골짜기에서 인진아를 만나 사랑을 나눔(진아는 해주가 고향으로, 경북공 개축공사 부역을 하다 사망한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어느 노파에 끌려 관으로 들어갔다 가 도망나오는 길에 하늬를 만남)
투쟁	· 서소문 밖 객주집에서 전봉준을 만나 의형제를 맺음 · 전봉준과 더불어 혁명을 결의하고 전쟁에 참여함 · 전주화약과 집강소 설치로 혁명을 마무리하려는 전봉준에게 속전과 유격전을 주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삼례에서 전봉준과 헤어지고 금마를 거쳐 부여로 돌아오며 해주로 피난 보낸 진아를 생각함 · 일본군의 남진에 대항하여 재집결한 농민군 4만을 이끌고 정남에서 복삼함 · 우금티 전투에서 패한 후 유격전을 하다 후퇴하여 이인, 계룡으로 향함 · 계룡산 상봉에서 유격부대 재조직을 결심함 · 유격전을 벌임
사망	· 산에서 내려와 스스로 형장으로 걸어들어가 효수형을 당함

갑오농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전봉준의 혁명노선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유격전을 주도하는 점도 신하늬의 영웅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 작품에서 신하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상상적 역사의 공간으로서, 그는 실제적 역사에서 전봉준이 주도하여 실패한 혁명으로 끝난 갑오농민전쟁을 상상의 공간에서 재수행하는 의미를 띤다. 이를테면 신하늬는 역사적 영웅인 전봉준의 한계를 넘어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싸우는 허구적 영웅인 것이다. 물론 신하늬도 실제 역사의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혁명의 실패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유격전을 수행하다가 산에서 내려오고, 형장으로 걸어들어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제의적 희생양이 된다(왕병과 일본군에 의하여 농민의 처형이 자행되는 가운데 신하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음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다). 이러한 신하늬의 죽음은 밀고로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하는 전봉준의 죽음보다 그 영웅적 의미의 폭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쟁 서사와 허구적 공간 구현

「금강」이 갑오농민전쟁을 제재로 하는 전쟁 서사라는 점은 아주 중요한 스토리텔링 요소이다. 갑오농민전쟁은 농민이 주축이 되어 봉건적 지배체제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혁명전쟁으로, 이 땅에 민중적 힘의 분출을 확인시켜 준 일대 사건이다. 「금강」은 1862년 진주농민반란으로부터 시작하여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따라가며 민중 혁명사의 추이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즉 진주·문경의 농민반란(1장), 동학의 교조신원운동(14장), 전주·익산·고부의 농민반란(15장), 갑오농민전쟁 발발과 고부성·황토현 싸움(17장), 청일전쟁과 전주화약 및 집강소 설치(18장), 우금티 싸움(20장), 농민군의 패퇴와 일본군의 민중학살(21장), 전봉준의 체포 및 죽음(23장) 등의 역사적 사실이 바탕이 되어 전투의 긴박함과 승리의 환희, 그리고 분패의 비극이 교차하는 매우 극적인 전쟁 서사가 구성된다.

중국의 정사(正史)인 『삼국지』가 소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으로 무한한 장르적 확산

을 일으키는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6], 전쟁 서사는 몰입성이 강한 스토리텔링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 왜냐하면 전쟁 서사는 삶과 죽음, 승리와 패배, 지배와 피지배의 두 극단적인 세계를 앞에 두고 벌이는 처절한 투쟁의 기록으로, 전쟁이 필연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꿈, 욕망, 용기, 배신, 좌절, 고통 등의 인간 감정과 행동 양상은 매우 꾀진성 있고 흥미진진한 인간 삶의 모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강」이 보여주고 있는 선과 악, 영웅과 악당의 대결 양상도 전쟁 서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여 수용자층의 적극적인 몰입을 유도하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앞서 「금강」이 전봉준을 중심 인물로 하는 역사적 층위의 사건과 신하늬를 중심 인물로 하는 허구적 층위의 사건을 결합하는 서술구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금강」의 전쟁 서사가 역사의 실제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상적 공간에서 새로운 사건을 창조할 수 있는 서사 확장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전봉준에 의하여 주도된 갑오농민전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펼치는 신하늬에 의해 역사적 사건과는 다른 형태의 전쟁 양상으로 허구화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가령 전주화약을 맺고 집강소 설치에 머문 전봉준과 달리 신하늬는 지속적인 혁명 수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농민군 패퇴 이후에 유격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역사를 벗어난 허구적·상상적 공간에서 갑오농민전쟁을 구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지닌 원형 모티프를 변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허구적 공간 구현은 “원형 모티프의 이야기적 재미를 그대로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와 역사, 상황에 맞는 흥미진진함을 그대로 맛볼 수 있게”[7] 하는 스토리 창조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앞서 살핀 전봉준, 신하늬의 영웅적 성격과 결부되어 ‘영웅 모험담’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있는 가능성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동일의 연구에 따르면 영웅 이야기는 영웅의 일생으

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로서 [표 3]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8]. 이와 같은 영웅 이야기의 유형으로 볼 때 「금강」의 서사에서 전봉준은 민중적 영웅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신하늬는 귀족적 영웅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기능하는 화소에 의해 그 일대기가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이 작품의 전쟁 서사는 민중적 영웅과 귀족적 영웅의 두 차원의 삶이 겹쳐지는 지점에 놓여 있으며, 이것은 더욱 폭넓고 입체적인 이야기를 탄생시킬 수 있는 서사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영웅 이야기의 유형

민중적 영웅 이야기	귀족적 영웅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친한 협동을 지니고 태어남 · 법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남 · 항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에 부딪힘 ·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됨 ·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귀한 협동을 지니고 태어남 ·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함 · 법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남 ·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룸 · 구출자나 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힘 ·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됨

3. 설화적 스토리의 구현

신동엽은 그의 시에서 다양한 백제계 설화를 적극 수용하여 창작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강」에서도 마동 설화, 곰나루 설화 등을 시적 문맥으로 구현하고 있다. 설화는 본질적으로 민족의 생활과 역사 속에서 구비전승되는 가운데 민족의 공동체적 세계관을 담게 된다. 따라서 설화는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와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으므로 후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재현되는 원형적 서사라고 할 것이다. 신동엽의 설화 수용도 이런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마동 설화는 백제의 30대 왕인 무왕과 관련된 설화로서, 흔히 알려져 있는 ‘서동 설화’와 동일한 스토리를 지닌다. 이 설화는 원래 i) 마동의 탄생과 관련된 영웅탄생설화, ii) 선화공주와 관련된 혼인설화, iii)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연기설화 등 3종의 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바[9], 「금강」은 19장에서 이러한 화소들을 모두 수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

품에서 마동 설화가 개입하는 지점은 신하늬가 전쟁으로 헤어져 있는 아내인 진아를 애듯하게 그리워하는 지점이다. 전주화약 후 전우들과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마를 이르자 “언제였던가 / 가을 걷이 손 털고 / 재작년 늦가을 / 진아는 하나의 손가락 끼어 / 미륵사탑 아래 / 그림으로 / 서 있었지”라며 진아를 떠올리게 되고, 이어서 무왕의 이궁 터와 미륵사탑에 관련된 마동 설화를 서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마동 설화는 마동과 선화공주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함과 아울러 “35년의 세월 / 머리에 돌이 고 / 염불 외며 / 농한기 / 3만평의 땅에 / 미륵사, / 미륵탑, 세웠다”고 하는 백성들의 절실한 소망을 드러내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신하늬와 인진아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민중의식의 표출에 대한 환유적 의미를 띠게 된다.

곰나루 설화는 우금터 전투에 앞서 농민군이 ‘곰나루’를 건너 일본군을 무찔렀다는 서술에 등장하고 있다(20장). 이 설화는 무동 설화와는 달리 설화 자체와 관련된 서술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설화 수용의 측면에서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4월은 갈아엎는 달」, 「깍뎌기는 가라」 등과 같은 신동엽의 대표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곰나루’는 신동엽의 시에서 핵심적인 시정신의 표상이다. 곰나루 설화는, 인간이 되고자 했던 곰이 그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을 담고 있다[10]. 이러한 설화의 비극성이 갑오농민전쟁의 격전지로서 민중 혁명의 실패라고 하는 역사의 비극성과 부합됨으로써 ‘곰나루’를 민중 정신을 표상하는 원형적 공간으로 설정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금강」을 비롯하여 신동엽의 시에서 곰나루는 ‘깍뎌기’를 거부하고 ‘알맹이’를 염원하는 민중의식이 면면하게 ‘아우성’치는 곳으로서(「깍뎌기는 가라, 참초」), 그의 시정신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구체 공간인 것이다.

IV. 결론

문화콘텐츠는 산업과 문화를 아우르는 함의를 지니

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므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콘텐츠 산업구조가 기술 중심에서 창작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획·창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광고, 공연예술, 대중음악, 만화, 테마파크 등의 대본이 되는 스토리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대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시나리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콘텐츠의 질과 양을 결정짓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11]는 지적과도 같이 문화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 스토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는 「금강」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작품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문학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스토리를 콘텐츠로 구현하는 기반을 삼고자 했다. 서사시 「금강」은 신동엽의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드러냄과 아울러 당시에는 금기적 제재였던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성을 전면 화함으로써 발표 당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이러한 문학사적 가치와 함께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서사시로서의 장르적 특성에 기인하는 풍부한 스토리텔링 요소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금강」은 수운, 해월, 전봉준, 신하늬 같은 개성적이고 서사성이 강한 영웅적 성격의 인물 유형을 다양하게 창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콘텐츠 개발의 측면에서 캐릭터 구현에 매우 적합한 스토리텔링 요소라고 하겠다. 캐릭터는 스토리 장르의 전 분야에서 사건과 행동의 주체이자 성격의 담지자, 주체의 구현자이기 때문에 캐릭터성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것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에 유용한 ‘이야기 가치’(story value)를 보유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금강」은 역사적 사건인 갑오농민전쟁을 바탕으로 몰입성이 강한 전쟁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신하늬라고 하는 영웅적 인물을 중심으로 허구적 공간을 구축하는 점, 민중적 영웅인 전봉준과 귀족적 영웅인 신하늬의 일대기가 겹쳐지는 영웅 모험담의 화소들은 이 작품의 스토리텔링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작품이 수용

하고 있는 설화적 스토리도 역시 신동엽 문학을 테마로 하는 사이버 문학관 구축이나 문학공원(테마파크) 개발에 매우 효과적인 콘텐츠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요소들은 앞으로 「금강」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 적극 활용해야 할 점인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금강」의 스토리텔링 요소에 의한 문화콘텐츠화 가능성을 나타내 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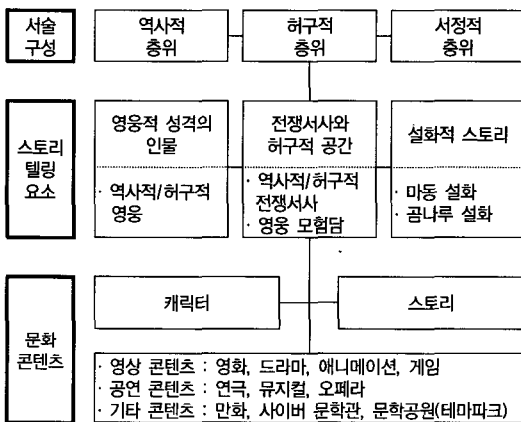


그림 1. 「금강」의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화 가능성

참고로 밝혀둘 것은, 본 연구에서는 「금강」이 지니고 있는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로서의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논점은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학 텍스트 영역의 미적 판단이 문화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요소로의 가능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신동엽 문학관' 건립에 따라 신동엽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금강」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스토리텔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실제 콘텐츠의 기획·제작과 관련된 각론적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참고 문헌

[1] 강상대, “대지의 논리로서의 시 : 신동엽론”,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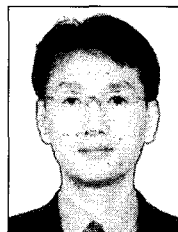
의 표정과 화법, 한불문화출판, p.64, 1999.

[2] 민병욱, 한국서사시의 비평적 성찰, 지평, p.242, 1987.
 [3] 우한용, “「금강」의 양식적 특성에 관한 고찰”, 국어문학, 26집, 전북대 국어국문학회, p.158, 1986.
 [4] S. 채트먼 /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사, p.19, 2003.
 [5] 장덕순, “영웅서사시 「동명왕」”, 인문과학, 5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pp.116-119, 1980.
 [6] 이정엽, 디지털 게임, 상상력의 새로운 영토, 살림, pp.45-49, 2005.
 [7] 고옥 외, 디지털 스토리텔링, 황금가지, p.47, 2003.
 [8] 조동일, 한국 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p.118, 1985.
 [9] 현승환, “서동설화 연구”, 백록어문, 8집, 제주대국어교육연구회, p.77, 1991.
 [10]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충청남북도편, 평민사, pp.212-213, 1990.
 [11] 이범식,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시나리오의 중요성과 정책과제”,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그 조우와 성장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2002.

저자 소개

강상대(Sang-Dae Kang)

정희원



- 1986년 2월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문학사)
- 1989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문학석사)
- 200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문학박사)

· 2002년 3월~현재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문예창작교육